

검은 바다에 '자비의 물결'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 사찰 봉사활동·성금지원 줄이어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국민적인 자원봉사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의 봉사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 12일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 캠프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펼쳐 온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는 캠프 인근의 오염 방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21일 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교구본사인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에 지원 본부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급식봉사에 나선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20일 봉사를 마무리 지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7일 스님과 중도들을 비롯해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외국인 관광객 등까지 함께 태안 개북항 주변에서 방제활동을 펼쳤다. 관음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연인원 3만여 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복구 현장에는 동안계 결계

중인 수좌스님들이 예외적으로 산문을 나와 도움을 손길을 보내 스님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14일에는 예산 수덕사 선방 정혜사 수좌 20여명을 비롯해 견성암, 보덕사 등 안거대중 100여 명이 기름제거 활동에 참가했다. 통도사 선원 스님들도 17일 윤원 및 강원 스님 등 200여 명과 함께 태안 신두리해수욕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청도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 200여명은 17일 기름띠 제거에 나선 한편, 이번 사고로 무참히 희생당한 일체의 생명을 위한 전도재를 봉행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이어 성금지원도 줄을 잇고 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방문해 재해복구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고, 앞서 17일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통의장 효림·성관)가 조계종 사회부에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구룡사와 호암사 등 각 사찰과



태안 기름유출 피해현장에 불자들의 복구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 통도사 선원 스님들이 윤원, 강원 스님들과 함께 12월 17일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에서 기름띠 방제작업을 펼쳤다.

단체들도 기름띠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승가원자 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을 비롯한 복지사 30명은 15일 기름 제거에 동참했고, 태안지역과 가까운 서산 부석사의 서산불교환경연대(041-662-3824)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봉사할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기름띠가 전라북도까지 퍼 내려감에 따라, 전북 지역 사찰들도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의류 등 휴착포를 대용할 만한 구호물품 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형·김강선·조동제 전북복지사장

'직업 소개'로 자원봉사 하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세어윌' 프로그램 진행

"자신의 직업을 소개해주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독특한 봉사 프로그램 '세어윌(Share will)'을 내놓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세어(share)'와 '의지'라는 뜻을 가진 '윌(will)'의 합성어다.

세어윌 프로그램의 주체는 크게 두 집단. 자원봉사자 집단인 직업을 가진 어른과 수혜자인 저소득 및 일반 청소년이다. 먼저 직업을 가진 어른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평소 좋은 일을 하고 싶었으나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어 고민인 어른들에게 안심맞춤인 셈. 따로 시간을 내어 어딘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운영위원회도 꾸려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년 스님, 번개철가방 김대중씨,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중 교수님 비롯해 스님·기업인·교수 등의 직업군이 포함된 15명의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봉사활동을 이끌어 준다.

수혜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www.sharewill.co.kr)에서 직접 경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 체험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 포인트가 필요한데 저소득 청소년들은 포인트를 지급받고 일반 청소년들은 구입해야 한다. 이때 발생된 비용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소원들어주기 기금으로 조성된다.(02)723-5101 김강선 기자

범어사 내년 무료 개방

1월 1일부터 입장료 폐지

선학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문화재관람료폐지'를 부산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범어사는 "입장료 폐지를 조계종단에 보고한 상태이나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부산시의 협의는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 범어사는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1일을 기해 입장료를 폐지하고 시민들을 위한 축하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지난해부터 범어사와 부산시는 입장료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지원 금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료개방이 무산됐었다.

12월 20일 범어사에 따르면 금정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범어사를 무료 개방하는 대신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해 예산 2억원을 문화재시설보호지원비로 받는다.

범어사는 일주문, 대웅전, 3층 석탑, 삼국유사 초기 간행본 등 8가지 국가 지정 보물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0만 명이 찾고 있다.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에 **마미로봇**

Mamirobot KMI (주)경민에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가격) 입금계좌: 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락]

기고 - 태안 기름유출 복구현장에서

"생태 파괴 재앙, 다시 반복되지 않길"

맨 처음 뉴스에서 태안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된 모습을 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태안 주민·공무원·환경 및 종교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에 나서 일손을 돕는 것을 보며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속으로 삭였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모두 자원봉사에 나선 12월 14일, 저희 수덕사 신도들도 신두리 해수욕장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신두리에는 불자봉사자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사장은 파도가 몰고 온 기름띠까지로 인해 기름띠를 이뤘고, 굴 양식장에는 기름띠머리와 굴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바위 틈새까지 기름띠까지가 베를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에 의한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휴착포를 받아 백사장 모래에 남아있는 기름띠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수일간 기름띠를 제거한 탓인지 백사장은 슬슬 제 모습을 찾게 됐다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면 노보살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터진 직후 이곳에 왔을 때 백사장은 검은 기름띠머리로 차찰 수 없는 지경이었다지요. 그 모습이 기가 막혀 그저 눈물만 났을 정도라고 하였고,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띠 제거작업은 오전부터 시작됐지만 오후 3시가 넘자 밀물 때가 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의 봉사활동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신두리에 다시 도착한 것은 12월 19일, 수많은 자원봉사자 및 어민들의 노력으로 백사장의 변화가 보여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이날 우리가 봉

사활동을 한 곳은 신두리의 '사구 자연생태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백사장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지만 그곳의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파도에 의해 기름띠끼기가 계속 밀려들어 사구를 뒤덮었습니다. 기름띠로 검게 변한 사구를 보며 봉사자들은 안타까움에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파도가 몰고 온 기름띠끼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봉사자들은 삽·쓰레받기·호미·빗자루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손으로 기름을 긁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의 봉사활동은 종일 기름띠끼기를 걷어내는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나마도 오후가 되자 밀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마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걷어내도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사구 보호구역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우리들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날의 봉사활동 사건으로 인해 생태계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기름 양만 1만2000톤이 넘는다는 그 피해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피해상황을 보며 매일이라도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태안이 이전의 모습을 찾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내내 이 지역 주민·어민들에 대한 걱정, 갯벌과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예산 수덕사 신도회 김경숙 총무



I Love Buddha / 새해 맞이하기

용정운(www.zentoon.com)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보고·듣고·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계
 - 초발심사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염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시식 · 영반편
 - 장의편 · 점안편 · 이운편 · 의식편 · 기타편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SD카드 지원, 320x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전자록, 메모, 스케줄, 달력, 계산기), 영·중·일·한자 전자사전
※영어·일어·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